

한국인 인간관계의 문화적 특성과 척도개발 - 온정적 인간관계*

박 윤 심 형 인* 이 숙 중

성균관대학교 국정관리대학원

본 연구는 한국적 인간관계의 문화적 특성을 발견하기 위하여 수행되었다. 연구1에서는 한국인·한국사회의 특성에 관한 전문서적 21권과 한국인 인간관계의 문화적 특성에 관한 선행연구를 검토하여 한국적 인간관계의 특성을 이해하고 이를 대표할 수 있는 예비문항 45개를 선별하였다. 이를 활용하여 국내 대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문항-총점 간 상관관계를 분석하여 5개의 예비문항을 삭제하고 40개의 예비문항으로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6개 하위요인(32개 문항)으로 분석되었고, 측정문항의 내용타당도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의미가 중복되는 문항을 통합·수정하여 총 20개로 재구성하였다. 연구2에서는 연구1에서 재구성한 20개의 예비문항을 활용하여 국내 일반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우호적 관계, 정, 조화, 관계유지중시’의 4개 하위요인을 발견하였다.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해 측정모형의 타당도를 검토하고 개념타당도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3개의 측정문항을 삭제하여 17개 측정문항을 온정적 인간관계 척도로 확정하였다. 이후 온정적 인간관계 척도와 유사 개념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함으로써 변별타당도를 분석하였다. 또한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본 척도의 4개 하위요인을 한국의 문화적 특성 관점에서 해석하고 본 척도가 갖는 의의와 한계점을 논의하였다.

주요어 : 한국문화, 온정적 인간관계, 척도개발

* 이 논문은 2013년도 정부재원(교육과학기술부 인문사회연구역량강화사업비)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NRF-2013S1A3A2055042).

† 교신저자 : 심형인, 성균관대학교 거버넌스연구센터 박사후연구원, 서울시 종로구 명륜동 3가 53
Tel : 02-760-0372, E-mail : hisim@skku.edu

일반적으로 한국 사람들은 사회생활에 있어 ‘인간관계’가 중요하며 또 어렵다고 이야기 한다. 실제로 전국 성인남녀 직장인 1,333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 의하면 이중 41%가 직장인으로서 행복하기 위한 필요한 조건으로 ‘직장 내 좋은 인간관계’를 꼽았으며(sbscnbc 2013. 1. 7), 또 다른 조사에서는 직장인 2,178명 중 72.9%가 직장에서 업무보다 인간관계로 인한 스트레스가 더 크다고 응답했다(동아일보 2007. 3. 9). 한편 인간관계는 개인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기업 입장에서 중요한 하나의 ‘능력’ 또는 ‘역량’으로 여겨지기도 한다. 조직 구성원 300인 이상인 대기업 109개, 300인 미만인 중소기업 80개의 기업을 대상으로 한 박준성과 김환일(2008)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대기업의 44.3%, 중소기업의 42.6%가 인사평가를 할 때, 인간관계를 별도의 항목으로 보고 있다. 이는 조직 구성원을 평가하는데 있어 업무능력뿐만 아니라 인간관계 능력이 하나의 중요한 평가 요소라는 것을 보여준다. 즉, 한국 사회에서는 개인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조직 차원에서도 인간관계능력이 개인의 성공하는 삶(박영신, 김의철, 2008; 김용신, 2010)과 조직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갖춰져야 하는 중요한 조건으로 여겨지고 있는 것이다.

인간관계의 사전적 의미는 ‘개인과 개인 혹은 개인과 집단과의 관계’로, 한 개인의 생활양상 즉 사회적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인간의 모든 교류양상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개념이다. 특히 집단의 평가와 반응에 민감한 집단주의 문화권에 속하면서, 위에 언급한 바와 같이 인간관계를 하나의 능력으로 평가하는 한국에서의 인간관계는 다양한 목적과 의도를 포함하여 더욱 복잡하게 나타날 수 있다. 이러한 복잡성과 치밀함은 한국만이 가지는 특성이라

고 볼 수 있으며, 이러한 특성을 보이는 이유는 크게 개인주의와 대비되는 집단주의 문화의 영향과 한국 토착문화의 영향으로 볼 수 있다.

먼저, 한국인들의 인간관계 특성은 문화범주 중 집단주의 문화권에서 나타나는 특성을 보인다. 문화차원으로 나누어 볼 때, 한국을 비롯한 동아시아 국가들은 집단주의 문화권으로 분류된다. 이들은 개인주의 문화권에 속하는 서양의 구성원들과 비교하여 보다 관계중심적인 인간관과 상호의존적인 자기관을 가지고 있다(조금호, 2007)고 알려져 있으며, 친밀욕구가 강하고(Wheeler, Reis, & Bond, 1989), 교우관계가 장기적이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한규석, 1991). 즉, 상대적으로 집단주의 문화라 할 수 있는 동양의 경우 인간관계에 있어 장기적인 친밀감을 중시한다는 것이다. 또한 집단주의 문화권에서는 사회적으로 집단 전체의 목표 달성과 발전을 중요하게 여기며, 개인 간의 상호관련성과 공유적 인간관계(communal relationship)를 권장한다(Matsumoto, Yoo, & Fontaine, 2008). 즉, 집단주의 문화권에서는 그 구성원들에게 사회적으로 인간관계를 형성하는데 있어서 상호의존성이 높은 공유적 인간관계를 갖도록 유도할 수 있다. 따라서 비교문화연구에 의해 집단주의 문화권으로 제시된 한국의 경우(Hofstede, 1980; 1985) 문화적 영향에 의해 타인에 대해 상호의존적이며 친밀 욕구가 강하고 장기적이며 공유적인 인간관계를 중시하는 특성을 가지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다음으로, 한국인들의 인간관계의 특성은 한국 토착문화 중 ‘정(情)’이라는 개념의 영향을 받는다. ‘정’은 가까움과 밀착의 정도를 나타내는 내적 심리속성으로 한국인들만이 가지

는 토착심리라는 점에서(이규태, 1983; 최상진, 김지영, 김기범, 2000; 박통희, 2004a) 친밀함의 정도이자 유대감의 기준이 된다(강준만, 2006). 정을 기반으로 한국인의 인간관계는 타인과의 정서적 거리에서 ‘나’, ‘너’의 각각의 독립적인 공간이 아닌 ‘우리’라는 특수한 공간적 개념을 가지며,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자신의 어려움과 같이 생각하여 도우려고 하는 ‘인정’이라는 정서를 가지게 된다(이수원, 이현남, 1993). 또한 한국인의 인간관계는 ‘정’이 기준이 되기 때문에 일반적인 사람들과의 사이에서도 친밀한, 즉, 일차적 집단에서 느끼는 것과 같은 끈끈함을 느끼고자 하는 경향이 있다. 이는 상대방과의 관계에서 자발적이고 적극적으로 관계를 맺고 접촉을 시도하게 하여, 결과적으로 타인에 대한 지나친 관심 혹은 참견하는 행태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하나의 예로 한국에서는 처음 본 사람에게 나이나 가족 등의 사적인 질문을 하는 것을 흔히 볼 수 있고 때때로 이러한 행동은 외국인들이 보기에는 지나치게 개인적인 질문을 하는 것으로 비춰지기 쉬운데, 이는 한국 사람들이 타인과의 친근함을 느낄만한 공통분모를 찾아 관계를 시작하기 위한 적극적인 하나의 형태로 이해될 수 있다.

이처럼 한국인의 인간관계는 집단주의 문화와 한국 토착문화의 영향을 받아 인간관계의 양상과 형태에 있어 한국만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 있고, 이는 더 나아가 조화로운 관계유지, 개인·조직에 대한 의리, 경쟁·대결보다 협동·단결 중시 등과 같은 정서 및 행동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김영평, 정인화, 2004).

한편, 인간관계 양상에 대한 중요성과 파급력에 대해서는 문화권과 국가 간을 초월하여 보편적으로 중요하게 인식되어져 왔고, 따라

서 이와 관련된 척도 개발 역시 국외의 경우 1980년대부터, 국내의 경우 2000년대부터 시작되어져 왔다.

먼저 인간관계 측정 척도와 관련된 국외의 연구로는 공유적 인간관계 척도(Clark, Ouellette, Powell, Milberg, 1987), 친밀성 척도(Berscheid, Snyder, Omoto, 1989), 대인관계 가치 척도(Locke, 2002) 등이 있다. 구체적으로 Clark et al.(1987)은 일반적인 인간관계의 측면에서 인간관계의 정도에 따라 다른 사람들의 욕구와 행복(welfare)에 대해 특별한 책임감을 느끼는 반응을 측정할 수 있는 문항을 제시하여, 상대에 대한 욕구와 행복에 대한 책임감을 크게 가질수록 공유적 인간관계를 가진다고 보았다. Berscheid et al.(1989) 등은 친밀성을 타인과 함께 보내는 시간의 양, 상호작용의 다양성 등으로 측정하고,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이 자신의 의사 결정, 활동, 계획에 미치는 영향력을 평가하는 친밀성 척도(Relationship Closeness Inventory: RCI)를 개발하였다. Locke(2002)는 두 개인 간의 권력·지배와 같은 주도성(agententic)과 공유성의 정도에 따라 훈련, 문제해결, 동기, 목표 등이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대해 측정하는 대인 관계 가치 척도(Circumplex Scales of Interpersonal Values: CSIV)를 개발하였다. 이들 연구는 타인과의 상호관계를 맺고 이를 유지하며 거기서 개인이 느끼는 주관적인 감정과 행동을 측정하고자 했다는 점에서 보편적으로 인간관계에서 나타날 수 있는 양상을 측정하고 함의를 제공한다. 하지만, 인간관계라는 것은 개인과 개인 혹은 개인과 집단과의 관계를 맺는 방식을 넘어서 두 사람 또는 그 이상의 사람들 간의 지속적이고 복잡, 다양한 상호작용을 의미한다(김성희, 박경희, 2008)는 점에서 한국의 인간관계

의 특성을 위의 척도로 측정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즉, 한국과 같은 동양 문화권에서는 조직·집단 자체 안에서의 의미보다 개인과 개인의 상호관계의 의미가 더 강하기 때문에(김숙현, 김평희, 박기순, 신인아, 이두원, 정현숙, 최윤희, 2004), 문화차원에서 인간관계에 대한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둘째, 한국인과 한국문화를 고려한 국내의 인간관계 관련 연구는 대인관계 문제 척도(정남운, 2001), 초등학교 고학년용 조화적 대인관계 척도(최성식, 김성희, 2007), 관계적 자기 척도(방희정, 윤진영, 김아영, 조혜자, 조숙자, 김현정, 2007),¹⁾ 대학생 대인관계 조화 척도(김성희, 박경희, 2008) 등이 있다. 이들 연구는 인간관계 자체에 집중하기 보다는 인간관계의 특정한 형태나 구체적인 문제 상황에 집중한 연구로 연구의 범위 및 내용이 특정 집단과 구체적 상황으로 제한된다는 점에서 한국인들의 일반적인 인간관계 형성 및 유지와 관련한 문화적 특성을 대변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볼 수 있다.

한국인의 인간관계에 관한 척도개발의 필요성

기존의 인간관계 측정과 관련하여 진행된 연구들을 살펴보면 한국사회에서 인간관계라는 연구주제가 갖는 중요성(박영신, 김의철, 2008; 김용신, 2010)과 파급력에 비해 이를 측

정하고 다른 관련 변수들과의 관계성을 설명하기에는 미비한 실정이다. 또한 기존의 서양 문화권에서 개발된 척도들을 사용하는 것은 동일한 개념일지라도 문화권에 따라서는 그에 대한 이해의 차이와 표현에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에 응답자들에게 의미를 전달하고 그 결과를 해석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생길 수 있다.

구체적으로 동아시아인들과 서양인들 간에 ‘우리, 집단’에 대한 개념과 표현에는 차이가 있다(Marshall, 2008). 자신이 속한 집단이나 공동체인 ‘우리’를 이야기할 때에 서양에서는 ‘집단 자체’에 의미를 부여하지만, 한국을 포함한 동양에서는 집단 자체의 의미보다는 ‘일치된 감정’을 강조하는 의미로 사용된다(김숙현 등, 2004). 즉, 물리적이고 가시적인 집단과 구성원을 의미하기 보다는 그 안에 공유된 가치와 감정, 신념 등과 같이 좀 더 추상적이고 비가시적인 것까지를 포함하고 이를 더 중시한다. 따라서 ‘우리, 집단’과 관련된 설문을 받고 그에 대한 응답을 할 때 응답자가 추정하여 포함하게 되는 그 범위는 문화권마다 다를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한국의 인간관계라는 개념에서도 단순히 관계를 맺고 있는 행태를 넘어서 한국인들이 ‘인간관계’라고 할 때 포함하는 하위요소와 개념들 역시 기존에 개발된 개념적 의미와 다를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심층적 논의가 필요하다.

측정하고자 하는 개념에 대한 심층적 논의와 개발된 척도가 미비한 상황에서 어떠한 상황을 설명하는 것은 그 현상을 해석하는데 있어 한계가 있을 수 있다. 가령 지금까지 한국인들의 인간관계 특성에 대한 연구에서는 ‘정지향적인 행동’과 ‘인정이 많은 행위’ 등과 같은 한국 토착문화에 기반한 행동의 부정적인 영향이 부각되어져 왔다. 구체적으로 연고주

1) 관계적 자기 척도는 인간관계 보다 자신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에서 다른 척도들과는 구별된다고 볼 수 있으나 구성요인으로 발견된 지지받기, 주도성, 관계의존, 공감-배려, 도구적 관계, 관계 회피, 타인 의식 중에서 타인 의식을 제외한 구성요인의 측정문항이 인간관계에 관한 문항으로 구성되었기 때문에 인간관계 척도로 이해할 수 있다.

의에 의한 부정부패(박영신, 김의철, 2008), 내 집단의 폐쇄성(이중환, 1994; 임태섭, 2006), 내 집단 편향성(차재호, 정지원, 1993; 최준식, 2003), 인정주의(한규석, 2009), 가족 중심주의(차재호, 정지원, 1993)가 이에 해당한다. 이들 연구에 의하면 한국인들의 내집단 중시 즉, 일명 ‘끼리끼리’ 문화는 타 집단 및 타인에 대해 배타적이며, 자신들의 집단의 이익을 위한 집단 이기주의, 연고주의, 부정부패 등과 같은 여러 사회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것으로 비춰진다. 하지만 한국인의 인간관계 특성 중 자신이 속한 집단과 그 구성원들에게 헌신하는 것은 한국인 특유의 단결력(최준식, 2003), 응집력(김용신, 2010), 상호 사회적 지원(박영신, 김의철, 2008) 등 긍정적인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 또한 내집단과 외집단을 구분하여 설명하고 있지만, 내·외집단 사이에 갈등이 조장될 때가 아닌 일반적인 상황에서 한국인들은 ‘정’, ‘인정’ 등과 같이 낮은 사람들에 게도 우호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유민봉, 심형인, 2013). 즉, 내·외집단의 구분이 갈등 및 대립상황이라는 대결구도인지, 일반적인 소속감의 문제인지에 따라 각 구성원의 행동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현재 개발되어진 한국 토착문화를 기반으로 연구하고 개발된 설문문항에 있어서도 본래 그 개념이 의미하고 측정하고자 하는 것이 타당하게 반영된 척도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것이다. 즉, 실제현상을 기반으로 한 개념화부터 다시 정밀하게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하여 본 연구에서는 한국사회, 한국인의 인간관계에 대한 내용상의 종합적이고 심층적인 검토를 통해 한국의 인간관계 특성에 대한 개념을 구체화 하고,

이를 측정할 수 있는 설문문항을 선정하여 한국인의 인간관계를 타당하게 측정할 수 있는 척도를 개발하는 것을 연구목적으로 한다.

한국인의 인간관계

한국인의 인간관계 특성에 대한 개념적 논의는 친애적 인간관계(Leung, 2010; Lu, Gilmour & Kao 2001; Ward, Pearson & Entrekina, 2002), 정적 인간주의(백완기, 1982), 공유적 인간관계(Oyserman, Coon, & Kimmelmeier, 2002, Shulruf, Hattie, & Dixon, 2007), 온정적 인간관계(유민봉, 심형인, 2013)에서 그 유사점을 찾아 볼 수 있다.

먼저 친애적 인간관계는 중국가치조사(Chinese Cultural Value, CVS)에 포함되어 있는 하위개념으로 친절과 측은한 마음, 공손한, 인내심 등의 공자의 ‘인(仁, human-heartedness)²⁾’ 사상을 바탕으로 두고 있다. 이는 친분 정도와 상관없이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특성으로 개인이 선천적으로 타고나거나 후천적으로 학습된 ‘인성’으로 본다는 점에서, 친분 정도에 따라 태도, 정감적·감정적 반응이 달라지는 한국인들의 인간관계 특성³⁾과는 차이가 있다고 볼

2) ‘인’은 두 사람 이상의 인간관계에 의존함으로써 자신의 목표보다는 이타주의적 목표를 향하여 발전하고자 하는 특성이 있다(Leung, 2010).

3) 예를 들어, 같은 집단의 구성원 혹은 친한 사람과 이야기를 나눌 때에 자신의 일이 아니더라도 마치 내가 겪은 일처럼 상대방이 처한 상황에 공감하며 걱정해주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즉, 동질감을 느끼는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서로 간에 아껴주는 마음이 작용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한국인의 인간관계는 개인의 인성뿐만 아니라 사회영역에서 나타나는 개인 간의 상호작용을 토대로 하는 인간관계를 강조한다는 점에서 개

수 있다.

두 번째로 정적 인간주의는 우리라는 의식 속에서 타인과 밀착된 유대관계를 맺으려는 태도로서 자신이나 귀속적 집단 이외의 사람들과 밀착된 관계를 유지하고 싶어 하는 성향을 말한다(백완기, 1982). 정적 인간주의에서는 대인관계의 호감(interpersonal liking)이 그 자체로 목적이 되며(Ibid), 상호내포성, 밀접성, 친밀성, 신의, 의리 및 전체로서의 결합성이 포함된다(백완기, 1975). 한국인은 다른 사람과의 깊은 정적인 유대관계를 맺음으로써 심적인 안정과 편안함을 얻는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백완기, 1982), 가까이 지내는 사람들과 강한 동질감을 느끼고 함께 지내던 사람이 떠나면 허전함을 느낄 것이라고 추론해볼 수 있다. 즉, 한국인의 인간관계에서는 상호 간의 지속적인 접촉이나 공동 경험을 통해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되는 ‘정’(임태섭, 2006)이 개인의 성향뿐만 아니라 인간관계의 정신적·정감적 유대감으로 작용한다고 할 수 있다.⁴⁾

세 번째로 공유적 인간관계는 인간관계에서 주된 초점이 자신의 성취감을 얻는데 초점을 두는 교환적 인간관계에 대비되는 개념으로, 다른 사람의 행복에 관심을 집중하는 방식으

로 관계를 형성하는 개인적 성향을 의미한다. 하지만 공유적 인간관계에 대한 이러한 개념적 설명과 달리 이를 측정하는 문항들을 살펴보면 “내가 속한 집단의 구성원들의 이견에 마주치는 것을 피하려고 노력한다(Oyserman, Coon, & Kimmelmeier, 2002)⁵⁾”, “집단 구성원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논쟁을 피한다” “같은 집단의 구성원들이 내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 것이 싫다(Shulruf, Hattie, & Dixon, 2007)”와 같이 논쟁 상황이라는 특정한 상황에서 나타나는 행동만을 반영하고 있다. 또한 공유적 인간관계에서는 상대방의 행복에 관심을 가지는 이유를 일시적으로 상대방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결과적으로 나에게 돌아오는 이익과 보상에 대한 기대 때문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한국인의 인간관계에서는 각 개인은 자신과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관계를 맺고 있지 않은 사람의 욕구 및 행복에도 관심을 갖는 것이 미덕이라 생각하는 사회적 인식이 있어⁶⁾, 공유적 인간관계에서 다루고 있는 인간관계 보다 대상이 포괄적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온정적 인간관계는 유민봉과 심

인 자체보다는 사회적 인간으로, 그 의미가 확장된 개념이라고 볼 수 있다.

4) 한국사회에서 정적 인간주의가 특정 집단을 대상으로 하여 나타난 예로서 가족주의와 직장가족주의를 들 수 있다. 가족주의와 직장가족주의 두 개념은 적용대상 혹은 발생동기에 따라 구분된다. 가족주의는 가족과 혈연집단 등의 자신과 동일한 귀속집단을 대상으로, 직장가족주의는 자신이 속한 직장 혹은 직장구성원에 대하여 한정되어 나타나는 정적 인간주의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유민봉, 박윤, 심형인, 2012).

5) Oyserman, Coon과 Kimmelmeier(2002)의 연구에서는 집단주의의 8개 하위요인의 예시로 제시한 측정문항을 참고하였고, Shulruf, Hattie와 Dixon(2007)의 연구에서는 화합요인에 관련된 6개의 측정문항을 참고하였다.

6) 전통적 유교의 영향으로 집단 구성원 상호 간의 조화를 중시하여 갈등 상황에 부딪히는 것을 바람직하지 않게 여기는 인식이 존재하였으며(임태섭, 2006), 일반적인 각 개인의 인간관계에서도 조화를 유지하는 것을 사회생활의 중요한 목표로 삼는다(임계순, 2002). 개인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사회영역에서 사람을 평가할 때에도 조화, 화합 등의 가치 중시 정도를 고려한다.

형인(2013)가 한국문화를 다룬 전문서적을 내용분석하고, 심층면접과 자유목록의 결과를 문화합의이론을 통해 분석함으로써 한국문화의 한 범주⁷⁾로 제시한 것이다. 이들 연구에 의하면 한국사회의 문화적 특성 중 ‘정, 친근한, 타인에게 관심 가지는, 배려(도와주는), 조화, 협동, 겸손’은 온정적 인간관계 범주로 볼 수 있으며, 이러한 특성으로 보아 한국인의 인간관계에서는 ‘정서적 교감’이 강조된다고 본다(Ibid).⁸⁾ 즉, 한국인의 인간관계에서는 상대방의 욕구를 공유하고자 할 뿐만 아니라 인간관계 형성 및 유지를 위해서는 친근감, 정서적 편안함이 필요하다고 인식되며(Ibid), 이들 연구에 의하면 앞서 유사개념으로 논의한 친애적 인간관계, 정적 인간주의, 공유적 인간관계에 대한 개념이 모두 포함되어져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유민봉과 심형인(2013) 연구의 하나의 후속 연구로서 한국인의 인간관계의 특징을 ‘온정적 인간관계’로 보고 개념화된 내

용을 반영할 수 있는 예비문항을 선정하고, 타당하게 측정할 수 있는 척도를 개발하는 것을 연구목적으로 하였다.

이러한 목적에 의해 본 연구에서 온정적 인간관계에 대한 척도가 개발된다면 다음과 같은 기대효과를 가질 것이다. 첫째, 기존에 문화와 사회적 맥락을 고려하지 못한 척도가 아닌 한국의 문화와 사회적 특성을 고려한 설문 문항을 설정함으로써 한국사회 현상에 대한 설명력과 이해를 높일 것이다. 둘째, 기존 국내 인간관계 척도개발 연구의 특정 연구대상(초등학생, 대학생 등)으로 범위 및 대상이 한정되었던 것을 한국인 전체를 대상으로 한 설문을 실시함으로써 한국인들의 일반적인 인간관계에서 나타나는 정감적 반응 및 행동, 문화적 특성을 이해하고 다양한 집단 연구에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개발된 척도를 사용함으로써 기존에 조직, 집단 내 인간관계에서 한국적 특성으로 제시되던 내집단의 폐쇄성(이종한, 1994; 임태섭, 2006), 내집단 편향성(차재호, 정지원, 1993; 최준식, 2003) 등에 대한 다른 시각에서의 해석과 상호친밀감, 유대감, 조화, 화합 등과 같은 긍정적 요소에 대한 설명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마지막으로 이러한 설명은 조직심리 및 조직차원에서 조직문화 및 조직구성원들의 및 관리적 차원에서 함의를 제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한국사회의 집단 간 갈등 및 분쟁 상황, 그리고 개인과 개인의 인간관계 형성 및 유지 상황에서 갖게 되는 심리적 경험 등과 같은 다양한 주제에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 7) 유민봉과 심형인(2013)의 연구에서는 한국문화의 특성을 ‘공적자아인식, 집단중시, 온정적 인간관계, 위계성 중시, 결과중시’ 5개의 범주로 구분하였다.
- 8) 전통적으로 한국사회는 농경사회에서부터 개인의 상호 협조와 도덕적 지원 등을 강조하는 문화적 가치가 존재하였으며(오세철, 1986), 이러한 문화적 가치는 한국의 집단주의 특성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개인주의 문화권의 집단생활에서는 업무 자체를 중시하는 반면에, 집단주의 문화권에서는 집단 내의 조화를 중시하는 인간관계를 강조하는 특성이 있다(김숙현 등, 2004). 또한 한국사회에서는 온정적 인간관계가 효과적인 금전적·비금전적 교환관계의 선행요소라고 여기며, 새롭게 인간관계를 형성할 때에도 친근감을 형성함으로써 상대방과의 정서적 거리감을 줄이고자 하는 특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연구 1: 예비문항 선정 및 탐색적 요인분석

방 법

조사방법 및 절차

한국인 인간관계에 관한 1차 예비문항 선정 과정은 2011년 6~8월에 이루어졌으며, 7명의 대학원생이 참여하여 한국인·한국 사회의 특성을 발견할 수 있는 전문서적 21권을 검토하였다. 문헌 검토의 주된 목적이 항목 개발에 있었기 때문에 검토 대상에 포함한 서적은 심리학(최상진, 2000; 2011; 황상민, 2011), 한국학(최준식, 2002; 2003), 신문방송학(강준만, 2006), 사학과(임계순, 2002) 등 다양한 관점에서 서술한 교양서적을 대상으로 하였다. 출판 연도를 기준으로 1990년대 서적이 5권 2000년대 이후 서적이 16권이었으며, 저자는 내국인이 17명 외국인은 4명(일본인 3, 중국인 1)이었다.

서적에 대한 내용분석은 먼저 각 저서에서 한국문화의 특성을 서술한 문장을 표시하여 초기 2,610개의 문장을 확보하고, 이 과정에서 정리된 문장들의 내용적 타당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7명의 대학원생이 검토 서적과 순서 등을 변경하여 검토하고 여러 차례의 논의과정을 거치는 등 내용타당도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1차로 확보된 2,610개 문항은 21개의 저서에서 한국문화 특성과 관련하여 언급한 내용을 모두 담았고, 이 저서 중에는 1990년대 이전의 자료들도 포함되어져 있기 때문에 2차 예비문항 선정 과정에서는 시의성이 떨어지는 내용의 문장을 제외하고, 유사한 표현과 중복

되는 표현을 통합, 삭제하여 680개의 문장으로 정제하였다. 정제된 680개의 문장은 유민봉과 심형인(2013)의 한국사회의 문화적 특성 범주에 포함되는 공적자아인식, 집단중시, 온정적 인간관계, 위계성 중시, 결과중시라는 5개의 범주에 해당하는 문항 및 표현들이다. 연구는 5개의 범주 중 온정적 인간관계의 문항구성과 이에 대한 타당도 검증을 주요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온정적 인간관계의 핵심 키워드 정, 친근한, 타인에게 관심을 가지는, 배려(도와주는), 조화, 협동, 겸손 등의 개념과 국내·외 척도개발연구의 조화(김성희, 박경희, 2008), 겸손(진국화, 2011), 사회적 관계인식(유가기, 2010), 공유적·교환적 인간관계(Clark & Mills, 2011), 대인관계(정남운, 2001)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45개의 문항을 예비문항으로 선정하였다.

본 연구가 각 개인의 인간관계 양상에 대한 측정이 아닌, 한국사회 및 문화적 특성으로써 온정적 인간관계 특성을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므로 설문문항은 ‘한국 사람들의 인간관계 양상이 어떠한지’에 대한 것으로 설문지를 구성하였다. 구성된 설문지는 탐색적 요인분석을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수집된 설문지를 통해 45개의 예비문항에 대한 요인부하량, 문항-총점 간 상관성을 검토하고 탐색적 요인분석을 하였다.

연구대상

예비문항의 탐색적 요인 분석은 서울, 수원, 대전과 부산지역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응답자들은 각 지역에서 그 학기 수업을 하고 있던 학생들로, 교강사들의 협조를 받은 강의시간 전·후에 한국 사람들의 인간

관계 특성과 관련한 인식조사라는 설명을 듣고 자발적으로 설문에 참여하였다. 설문조사는 2012년 11월 19~26일에 설문지 배포 및 회수를 진행하여 총 215부를 회수하였으며, 회수된 215부 중에서 중국인 응답 6부와 불성실하게 응답한 2부를 제외하고 207부를 탐색적 요인분석에 활용하였다. 응답자의 성별은 남성 117명(56.5%), 여성 90명(43.5%)이었으며, 척도는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매우 그렇다'까지 Likert 6점 척도를 활용하였다.

분석방법

예비문항 선정과정에서는 문헌검토를 시행함으로써 한국인 혹은 한국사회의 특성에 관한 문장을 선별하고 내용타당도를 검증하고자 하였으며, 예비문항에 대한 탐색적 요인분석에서는 수집된 자료를 분석하기 위하여 SPSS 18.0 통계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탐색적 요인분석(Exploratory Factor Analysis)을 활용하여 각 예비문항의 요인부하량과 문항-총점 간 상관(correlated item-to-total correlation)을 검토함으로써 개별문항과 전체 문항과의 상관관계를 확인하였다. 요인추출방법은 주성분분석(Principle component method)과 직각회전방법(Varimax rotation method)을 활용하였으며 각 예비문항이 요인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는지 내용타당도를 고려함으로써 문항을 정제하였다.

결 과

예비문항 선정 및 문항-총점 간 상관관계

관련서적의 내용분석을 통해 선정한 45개의

예비 문항은 아래와 같으며(표 1), 탐색적 요인분석에 앞서 이들이 온정적 인간관계의 특성을 대표하여 설명할 수 있는지 검토하기 위해 문항-총점 간 상관관계를 확인하였다.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A3(.098), A16(.022), A22(.052), A34(.108), A44(.073) 총 5개의 예비문항은 전체 문항과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아 온정적 인간관계를 측정하기에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여 이를 삭제하였고, 이후 40개의 예비문항을 활용하여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예비문항에 대한 탐색적 요인분석

예비문항에 대한 탐색적 요인분석은 3번에 걸쳐 진행되었으며, 요인적재량과 기준에 부합하는 것으로 32개의 문항은 6개의 요인으로 분석되었다. 요인부하량 및 설명변량은 아래에 제시된 것과 같이 요인부하량은 .504에서

9) 1차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초기 40개의 예비문항은 고유치 1.0을 기준으로 8개의 요인으로 구분되며, 각 측정문항의 요인부하량을 검토한 결과 A5(.439), A23(.479), A25(.372), A35(.358), A37(.384) 5개의 문항은 동일 요인 내에서 측정문항간의 유사성이 낮음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이들 5개의 문항을 추가로 삭제하였고 A15(.678)는 단일문항으로 구성되어 삭제하였다. 2차 탐색적 요인분석은 1차 분석에서 삭제된 6문항을 제외한 34개의 측정문항에 대한 탐색적 요인분석으로 7개의 요인으로 구분되었고 KMO (Kaiser-Meyer-Olkin)는 .904, 예비문항의 요인부하량은 .487부터 .786에서 나타나 수용 가능한 것을 확인하였다. 다만, 요인7은 2개의 문항으로 구성됨에 따라 설명력이 낮다고 판단하여 A14(.777), A36(.679) 2개의 문항을 삭제하고 마지막 3차 탐색적 요인분석에서는 32개의 문항으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1. 예비문항의 기술통계 및 신뢰도

번호	예비문항	기술통계 및 신뢰도		
		평균	표준 편차	문항 총점상관
A1	한국 사람들은 가족은 아니지만 언니, 이모, 삼촌 등의 호칭을 쓸 때 친근감을 느낀다	4.63	1.098	.419
A2	한국 사람들은 같이 지내던 사람이 떠나면 허전함을 크게 느낀다	4.98	.870	.498
A3	한국 사람들은 개인 간의 이해관계가 정서적 교감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한다(R)	3.69	1.179	.098
A4	한국 사람들은 남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한다	3.95	1.099	.487
A5	한국 사람들은 네 것, 내 것 따지지 않는 인간관계를 부러워한다	4.06	1.346	.438
A6	한국 사람들은 맺고 끊는 관계를 분명히 하지 못한다	4.01	1.229	.448
A7	한국 사람들은 배려심이 큰 사람을 높이 평가한다	4.82	1.091	.591
A8	한국 사람들은 사람들에게 매우 친절하다	3.86	1.036	.561
A9	한국 사람들은 상냥한 사람을 높이 평가한다	4.61	1.057	.593
A10	한국 사람들은 가능한 자신이 양보하여 불편한 관계를 피한다	4.00	1.174	.514
A11	한국 사람들은 사람들의 실수를 관용적으로 받아들인다	3.63	1.158	.411
A12	한국 사람들은 사람들에게 매우 자상하다	3.79	1.021	.549
A13	한국 사람들은 선물을 받았으면 그에 상응하는 선물을 하려고 노력한다	4.53	1.056	.554
A14	한국 사람들은 일을 할 때 목표달성보다 인간관계를 우선시 한다	3.81	1.105	.361
A15	한국 사람들은 실수를 관용적으로 이해해주는 사람을 높이 평가한다	3.97	1.116	.477
A16	한국 사람들은 돈을 벌리고 갚는 개념이 약하다	3.19	1.558	.022
A17	한국 사람들은 사람들에게 우호적이다	4.18	.946	.601
A18	한국 사람들은 정든 사람과는 미운 감정이 들어도 쉽게 관계를 끊지 못한다	4.29	1.262	.397
A19	한국 사람들은 사람들에게 배려심이 크다	4.05	1.042	.593
A20	한국 사람들은 좋은 친구사이라면 이익과 손해관계를 넘어서야 한다고 생각한다	4.48	1.288	.550
A21	한국 사람들은 친구에게 돈을 빌려주고 갚으라는 말을 못한다	3.74	1.455	.427
A22	한국 사람들은 여럿이서 식사하고 각자 먹은 것을 따로따로 계산한다(R)	3.69	1.308	.052
A23	한국 사람들은 친한 사람들과 강한 동질감을 느낀다	4.87	.947	.530
A24	한국 사람들은 겸손은 인간관계를 좋게 만든다고 생각한다	4.79	1.072	.547
A25	한국 사람들은 함께 모임을 하는 사람들끼리 가족과 같은 관계로 생각한다	4.05	1.103	.496
A26	한국 사람들은 경쟁보다 협력을 좋아한다	4.06	1.166	.470
A27	한국 사람들은 자상한 사람을 높이 평가한다	4.53	1.028	.615
A28	한국 사람들은 친구 사이라도 지켜야 할 도리가 있다고 생각한다	4.94	.940	.481
A29	한국 사람들은 인간관계에서 서로 간에 아껴주는 마음을 중시한다	4.80	.884	.671

(계속)

번호	예비문항	기술통계 및 신뢰도		
		평균	표준 편차	문항 총점상관
A30	한국 사람들은 서로 간에 허물이 없는 인간관계를 이상적으로 생각한다	4.59	1.137	.602
A31	한국 사람들은 사람과의 관계에서 인간적인 따뜻함을 중시한다	4.79	.985	.650
A32	한국 사람들은 혜택을 받았으면 즉시 보답하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한다	4.20	1.134	.405
A33	한국 사람들은 겸손을 미덕으로 생각한다	4.77	1.084	.576
A34	한국 사람들은 자신의 호의에 아무런 반응이 없더라도 섭섭해 하지 않는다	2.69	1.191	.108
A35	한국 사람들은 친한 친구를 자신의 중요한 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	4.63	.990	.592
A36	한국 사람들은 능력이 좀 떨어져도 배려심이 있는 사람과 일하고 싶어한다	4.11	1.137	.481
A37	한국 사람들은 인간관계에서 정서적 교감이 이해관계보다 중요하다	4.28	1.027	.618
A38	한국 사람들은 사람과의 조화를 중시한다	4.62	.938	.610
A39	한국 사람들은 우정을 위해 금전적 손해를 감수한다	3.81	1.171	.587
A40	한국 사람들은 가족 같은 편안한 인간관계를 원한다	4.73	.981	.607
A41	한국 사람들은 주고받는 관계가 너무 분명하면 오히려 정이 없다고 생각한다	4.57	1.138	.394
A42	한국 사람들은 친구가 상을 받으면 자랑스러워 한다	3.97	1.226	.440
A43	한국 사람들은 대인관계에서 다른 사람의 체면을 생각해 준다	4.45	.988	.647
A44	한국 사람들은 호의에 대해서 반드시 갚아야 한다는 부담을 갖지 않는다	3.04	1.157	.073
A45	한국 사람들은 갈등보다 조화를 추구한다	4.70	1.027	.605

.788의 범위에서 나타나 모두 온정적 인간관계를 설명하는데 적절한 것을 확인되었다(표 2).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를 토대로 6개 요인과 각 측정문항의 내용타당성을 판단하여 내용타당도가 낮은 문항 즉, 하위요인의 의미와 차이가 있는 문항, 의미가 중복되는 문항 등을 삭제 및 수정함으로써 다음과 같이 측정문항을 재구성하였다.

먼저 요인1의 A8, A12, A17, A19는 공통적으로 ‘한국 사람들은 친절하고 우호적이다’라는 특성을 나타내고 있었으나 A10, A11, A13, A26, A42, A43 문항은 각기 다른 의미를 담고 있어 유사성이 낮아 통일성을 저해시킬 것으

로 판단하여 이를 삭제하고 ‘한국 사람들은 모르는 사람에게도 관대하다’는 문항을 추가하였다.

요인2는 A29, A31, A2 문항이 공통적으로 ‘한국인 인간관계에서의 따뜻함’을 포함하고 있어 인간관계에서의 교환, 밀착관계를 의미하는 A28, A30, A32 문항을 삭제하였고, 예비문항 선정에서 정제한 문항들을 재참고하여 ‘한국 사람들은 끈끈한 인간관계를 원하는 것 같다’ ‘한국 사람들은 친한 사람들과 강한 동질감을 느끼는 것 같다’를 추가하였다.

요인3과 요인6은 타인의 인간관계의 평가적 측면, ‘조화중시’를 나타낸다는 유사성이 발견

표 2. 예비문항의 요인부하량 및 설명변량

요인	문항	1	2	3	4	5	6
요인1	A12	.777					
	A19	.727					
	A11	.708					
	A8	.655					
	A26	.654					
	A17	.605					
	A10	.519					
	A43	.518					
	A42	.508					
	A13	.504					
요인2	A29		.736				
	A28		.695				
	A31		.672				
	A32		.577				
	A30		.570				
	A2		.537				
요인3	A9			.753			
	A24			.745			
	A7			.695			
	A27			.635			
	A33			.624			
요인4	A6				.788		
	A4				.782		
	A21				.569		
	A18				.517		
요인5	A20					.638	
	A39					.618	
	A1					.561	
	A41					.546	
요인6	A38						.673
	A45						.627
	A40						.569
고유치		4.954	3.780	3.436	2.638	2.515	2.149
설명변량		15.481%	11.814%	10.738%	8.243%	7.859%	6.717%
누적 설명변량		15.481%	27.295%	38.032%	46.275%	54.134%	60.851%

되어 이를 통합하여 재구성하였다. 요인3의 A7, A9, A27, A33 문항들은 집단 혹은 사회에서 높이 평가하는 사람을 나타내 의미적으로 중복되어 이를 통합하여 ‘한국 사람들은 주장이 강한 사람보다 양보하는 사람을 좋게 평가한다’ ‘한국 사람들은 다른 사람과 보조를 맞추는 것을 중요하게 여긴다’로 문항을 수정하였다. 요인6의 A38과 A45는 조화를 중시하는 의미인 반면에 A40은 가족 같은 편안한 인간관계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내적일관성이 낮아 삭제하였다.

요인4는 ‘관계유지를 중시하여 인간관계에서의 맺고 끊는 것을 분명하게 하지 못하는 특성’을 나타내는 문항들로 나타나 A4, A6, A21을 중심으로 하여 재구성하였다. A18 문항은 ‘한국 사람들은 정든 사람과는 미운 감정이 들어도 쉽게 관계를 끊지 못한다’에서 ‘한국 사람들은 문제가 발생해도 오래 알고 지낸 사람과의 관계를 쉽게 끊지 못한다’로 표현을 보다 구체적으로 수정하였고, 요인5로 구분되었지만 요인4와도 유사성(.304)이 나타난 A41을 ‘한국 사람들은 주고받는 관계가 분명하면 냉정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로 표현을 수정하였다. 마지막으로 요인5는 A20, A39와 A1 문항으로 묶였으나 A20, A39는 이해관계를 넘어선 관계를 의미하지만 A1은 친근함을 느끼는 대상에 대한 호칭에 관한 문항으로 차이가 있어 이를 삭제하였고, 총 20개의 문항으로 재구성하였다.

연구 2: 온정적 인간관계 척도 개발

방 법

연구대상

연구2의 설문조사는 2013년 1월 9일~1월 21일에 인구 통계학적 특성의 분포를 고려하여 전문설문기관을 통해 진행하였다. 탐색적 요인분석을 위한 응답자는 312명으로 남성 165명(52.9%), 여성 147명(47.1%)이며, 연령은 20대 61명(19.6%), 30대 85명(27.2%), 40대 92명(29.5%), 50대 74명(23.7%), 직업별로는 일반회사원 170명(54.5%), 가정주부 46명(14.7%), 자영업 44명(14.1%), 공무원 11명(3.6%), 공기업 3명(0.9%), 학생 31명(10.0%), 무직 7명(2.2%)이었다.

확인적 요인분석을 위한 응답자는 209명으로 이들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남성이 104명(49.8%), 여성이 105명(50.2%)이며, 연령별로는 20대 53명(25.3%), 30대 48명(23.0%), 40대 56명(26.8%), 50대 52명(24.9%), 직업별로는 일반회사원 99명(47.4%), 가정주부 41명(19.6%), 자영업자 25명(11.9%), 공무원 7명(3.4%), 공기업 3명(1.4%), 학생 26명(12.5%), 무직 8명(3.8%)이었다.

분석방법

수집된 자료에 대한 탐색적 요인분석은 SPSS 18.0을 활용하여 실시하였고 각 측정문항의 요인부하량과 각 요인의 신뢰도를 검토하였다. 이후 확인적 요인분석은 AMOS 18.0을 활용하여 각 측정문항이 상위 요인을 적절하게 설명하고 있는지 개념타당성을 검토하고 본 척도의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해 유사 개념간의 상관분석을 시행함으로써 온정적 인간관계 척도의 변별성을 검토하였다.

측정도구

온정적 인간관계

연구1에서 개발한 20개의 문항을 새로 수집한 설문자료로 연구2에서 다시 탐색적 요인분석과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최종 확정된 17개 측정문항을 사용하였다.

집단지향성

집단지향성은 혼자일 때보다 집단에 소속되었을 때 편안함, 안정감 등을 느껴 집단에 소속되고자 하는 성향을 의미하며, 온정적 인간관계가 높은 사람들은 인간관계와 인간관계에서 발생하는 유대감 등을 중시하여 집단지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하였다. 이를 측정하기 위해 유민봉과 심형인(2013)의 집단중시 특성을 참고하여 ‘한국 사람들은 여럿이 함께 어울리기를 좋아하는 것 같다’ ‘한국 사람들은 혼자일 때보다 집단에 속해있을 때 든든해하는 것 같다’ ‘한국 사람들은 같은 집단 내 사람들과 잘 어울려 다닌다’ ‘한국 사람들은 뭉쳐서 손해 볼 것은 없다고 생각한다’ ‘한국 사람들은 뭉칠수록 힘이 된다고 생각한다’ 5개 문항에 대해 6점 척도 상(1: 전혀 그렇지 않다~6: 매우 그렇다)에서 응답하게 하였다.

가족주의

가족주의는 사회의 근간을 가족으로 보고 가족을 중시하는 가치관(박통희, 2004a)으로, 이러한 가치관이 개인의 인간관계, 사회적 관계, 인식 등에 미치는 영향을 미칠 것이므로 본 연구에서는 온정적 인간관계가 높은 사람일수록 인간관계 내에서의 따뜻함, 화합 등을 추구하여 1차 집단인 가족을 개인의 삶에서 중요하게 생각할 것이라고 예상하였다. 이를

측정하기 위해 정재영(2003), 박통희(2004b)의 가족주의 측정문항, 그리고 유민봉, 박윤과 심형인(2012)의 직장가족주의 척도 8개 문항을 참고하여, ‘한국 사람들은 힘들거나 기쁠 때 가족을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것 같다’ ‘한국사회에서는 가족이 개인의 삶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한국 사람들은 가족의 일을 나의 일이라고 생각한다’ ‘한국 사람들은 부모의 노후에 대해 책임을 져야한다는 의무감을 가지는 것 같다’ 5개 문항에 대해 6점 척도 상(1: 전혀 그렇지 않다~6: 매우 그렇다)에서 응답하게 하였다.

교환적 인간관계

교환적 인간관계를 측정하기 위해 Clark과 Mills(2011)가 개발한 exchange orientation 척도의 측정문항을 번안하고 본 연구의 예비문항 중 A3, A13을 참고하여 ‘한국 사람들은 자기 이익 앞에서는 양보를 잘 하지 않는다’ ‘한국 사람들은 인간관계에서 자기 실속을 분명히 챙긴다’ ‘한국 사람들은 무엇인가 도와주었으면 그에 대한 대가를 기대하는 것 같다’ ‘한국 사람들은 인간관계에서 서로 주고받는 관계의 득실을 계산한다’ ‘한국 사람들은 인간관계에서 이해관계가 정서적 교감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5개 문항에 대해 6점 척도 상(1: 전혀 그렇지 않다~6: 매우 그렇다)에서 응답하게 하였다.

결 과

탐색적 요인분석

탐색적 요인분석에 사용된 312명에 대한

표 3. 탐색적 요인분석 및 신뢰도 분석 결과

요인	내용	요인부하량			
		요인1	요인2	요인3	요인4
우호적 태도	Q3 한국 사람들은 낯선 사람에게도 자상한 것 같다	.872			
	Q2 한국 사람들은 처음 본 사람에게도 배려심이 큰 것 같다	.870			
	Q1 한국 사람들은 모르는 사람에게도 관대한 것 같다	.835			
	Q5 한국 사람들은 전반적으로 우호적이다	.812			
	Q4 한국 사람들은 친하지 않은 사람에게도 친절하다	.802			
조화	Q15 한국 사람들은 다른 사람과 보조를 맞추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 같다		.780		
	Q14 한국 사람들은 주장이 강한 사람보다 양보하는 사람을 좋게 평가한다		.726		
	Q12 한국 사람들은 사람들과의 화합을 중시한다		.715		
	Q11 한국 사람들은 갈등보다 조화를 추구한다		.690		
	Q13 한국 사람들은 겸손이 인간관계를 좋게 만든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665		
정	Q8 한국 사람들은 함께 지내던 사람이 떠나면 허전함을 크게 느끼는 것 같다			.772	
	Q7 한국 사람들은 끈끈한 인간관계를 원하는 것 같다			.747	
	Q9 한국 사람들은 친한 사람들과 강한 동질감을 느끼는 것 같다			.710	
	Q10 한국 사람들은 사람과의 관계에서 인간적인 따뜻함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639	
	Q6 한국 사람들은 인간관계에서 서로 간에 아껴주는 마음을 중시하는 것 같다			.619	
관계 유지 중시	Q17 한국 사람들은 관계를 맺고 끊는 것을 분명히 하지 못 한다				.778
	Q20 한국 사람들은 문제가 발생해도 오래 알고 지낸 사람과의 관계를 쉽게 끊지 못 한다				.741
	Q18 한국 사람들은 친구에게 돈을 빌려주고 갚으라는 말을 잘 하지 못 한다				.727
	Q16 한국 사람들은 남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 한다				.678
	Q19 한국 사람들은 주고받는 관계가 분명하면 냉정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553
고유치		3.840	3.040	2.855	2.844
설명변량(%)		19.200	15.198	14.273	14.218
누적 설명변량(%)		19.200	34.399	48.672	62.890
신뢰도(Cronbach's α)		.906	.833	.823	.779

응답 자료는 $KMO=.885$, Bartlett's test of sphericity의 $\chi^2=2994.326(p<.001)$ 으로 나타나 요인분석이 가능한 자료임을 확인하였다.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20개 문항에서 모두 유의미한 요인부하량이 분석되었으며 4개 요인은 각 5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었고 전체 설명량은 62.890%이었다(표 3).

요인1은 '한국 사람들은 낯선 사람에게도 자상한 것 같다' '한국 사람들은 처음 본 사람에게도 배려심이 큰 것 같다' '한국 사람들은 모르는 사람에게도 관대한 것 같다' 등으로 구성되었다. 5개의 문항은 공통적으로 개인적인 친분이 없거나 친하지 않은 사람을 대상으로 나타나는 친절 혹은 배려, 우호적 태도 등을 나타내는 문항으로 구성되어 요인명을 '우호적 태도'로 하였으며 설명량은 19.201%, Cronbach's α 는 .906으로 나타났다.

요인2의 설명량은 15.198%, Cronbach's α 는 .833이었으며, '한국 사람들은 다른 사람과 보조를 맞추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 같다' '한국 사람들은 주장이 강한 사람보다 양보하는 사람을 좋게 평가한다' '한국 사람들은 사람들과의 화합을 중시한다' 등으로 구성되었다. 이들 문항은 조직 내 혹은 인간관계에서 다른 사람들과 화합하며, 조화롭게 지내는 것을 중시하는 경향을 내포하고 있어 '조화'로 명명하였다.

요인3은 설명량은 14.273%, Cronbach's α 는 .823이었고, '한국 사람들은 함께 지내던 사람이 떠나면 허전함을 크게 느끼는 것 같다' '한국 사람들은 끈끈한 인간관계를 원하는 것 같다' '한국 사람들은 친한 사람들과 강한 동질감을 느끼는 것 같다' 등으로 구성되었다. 구성된 문항들은 인간관계에서 가까이 지내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느끼는 끈끈한 유대감,

동질감 혹은 일체감 등을 나타내고 있어 '정'으로 명명하였다.

마지막으로 요인4는 '한국 사람들은 관계를 맺고 끊는 것을 분명히 하지 못 한다' '한국 사람들은 문제가 발생해도 오래 알고 지낸 사람과의 관계를 쉽게 끊지 못 한다' '한국 사람들은 친구에게 돈을 빌려주고 갚으라는 말을 잘 하지 못 한다' 등으로 구성되었으며 이는 관계를 유지하고자 함에 따라 혹은 관계가 안 좋아질 것을 염려하여 나타나는 행동적 특성을 반영하여 이를 '관계유지중시'로 명명하였으며, 설명량은 14.218%, Cronbach's α 는 .779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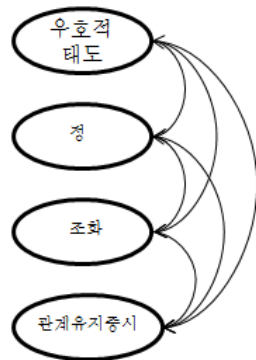
확인적 요인분석

4개 요인의 측정구조를 분석하기 위해 4개의 하위요인이 상관성을 갖고 있는 모형(측정모형1)과 상위차원의 온정적 인간관계가 4개의 하위요인의 특성을 대표하는 모형(측정모형2)의 적합도를 분석한 결과, 측정모형1과 측정모형2의 적합지수는 모두 수용기준을 충족하였고 적합지수가 근사하게 분석되었다(표 4). 한편 본 연구의 우호적 태도, 정, 조화, 관계유지중시, 4개의 요인은 본 연구의 예비연구에서 한국인 혹은 한국사회의 인간관계에 관한 문헌검토, 탐색적 요인분석 등의 예비문항 선정 및 개발 과정을 통해 추출한 특성이라는 의미를 갖는다. 따라서 우호적 태도, 정, 조화, 관계유지중시, 4개의 하위요인은 한국인 인간관계의 문화적 특성 즉, 온정적 인간관계를 공통의 상위요인으로 가지며, 상위요인인 온정적 인간관계는 4개의 하위요인을 대표하기 때문에 측정모형1보다 측정모형2가 비교적 타당성이 높다고 판단하여 측정모형2를 최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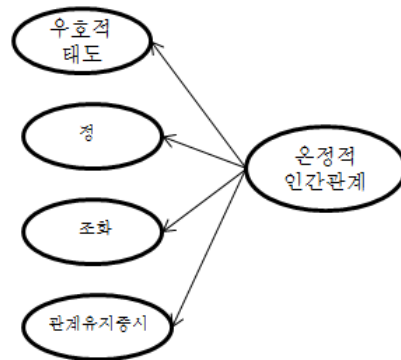
표 4. 측정모형의 타당도 적합지수 분석결과

적합지수	χ^2 (CMIN)	표준 χ^2 (CMIN/DF)	RMSEA	TLI	CFI
측정모형1	321.20	1.983	.069	.894	.910
측정모형2	325.76	1.986	.069	.894	.908
수정모형	220.95	1.955	.068	.920	.933
수용기준		≤ 3	$< .08$	$> .9$	$> .9$

모형비교



측정모형1



측정모형2(최적모형)

모형으로 선정하였다.

최적모형으로 선정된 측정모형2의 요인구조를 분석한 결과 ‘정’ 요인의 Q6번 문항(.459)과 ‘관계유지중시’ 요인의 Q19번(.395), Q20번 문항(.462)의 표준화계수가 작게 나타나 개념타당도(construct validity)를 감소시킨다고 판단하여 이를 삭제하였으며, 나머지 17개 문항을 온정적 인간관계 척도로 최종 선정하였다. 수정된 모형의 최종 적합도 지수는 $\chi^2(\text{CMIN})=220.950$, 표준 $\chi^2(\text{CMIN/DF})=1.955$, $\text{RMSEA}=.068$, $\text{TLI}=.920$, $\text{CFI}=.933$, 요인부하량은 .547에서 .934의 범위에서 유의미하게 나타나 온정적 인간관계를 설명하는데 적합한 것을 확인하였다.

온정적 인간관계 척도와 유사 개념 간 상관

먼저 ‘우호적 태도, 조화, 정, 관계유지중시’ 4개 요인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결과 정과 조화가 가장 높은 상관성을 보였고, 우호적 태도와 정, 관계유지중시가 가장 낮은 상관을 보여 서로 다른 개념임을 확인하였다(표 5). 이러한 결과는 우호적 태도가 정을 기반으로 하지 않는다는 것과 관계유지를 위한 행동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유사 개념 간의 상관분석에서 온정적 인간관계 척도의 하위요인 ‘우호적 태도’는 가족주의와의 정적 상관관계, 교환적 인간관계와 부적 상관관계를 보임과 동시에 가장 작은 관련성이 나타나 서로 다른 개념임을 확인하였다.

온정적 인간관계 척도의 변별성을 분석하기

표 5. 온정적 인간관계 척도 하위요인 및 유사 개념 간 상관

요인	우호적 태도	정	조화	관계유지 중시	교환적 인간관계	집단 지향성	가족주의
우호적 태도	1						
정	.221**	1					
조화	.332**	.588**	1				
관계유지중시	.282**	.355**	.377**	1			
교환적 인간관계	-.174*	.069	-.014	.099	1		
집단지향성	-.013	.373**	.388**	.360**	.324**	1	
가족주의	.186**	.352**	.417**	.469**	.230**	.524**	1

* $p < .05$, ** $p < .01$

위해 온정적 인간관계 척도와 관련 개념으로 볼 수 있는 집단지향성, 가족주의, 교환적 인간관계¹⁰⁾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표 6). 분석결과 온정적 인간관계, 교환적 인간관계와 집단지향성, 가족주의 간의 정적 상관관계가 유의미하게 나타났고, 온정적 인간관계와 교환적 인간관계 간의 상관관계는 유의미하지 않게 나타났다. 즉, 온정적 인간관계와 교환적 인간관계가 상반되는 개념이 아니라 의미적 속성을 공유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며, 온정적 인간관계 척도가 조직문화를 반영하는 유

사 개념과 일정부분 상관성을 가지면서도 변별성을 갖는, 서로 다른 개념이라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와 같은 결과들을 종합해보면, 한국인의 온정적 인간관계는 가족 및 동료, 친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동질감 및 친밀감을 느끼는 혹은 느끼고 싶은 욕구가 토착심리로 배태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심리속성으로 인하여 자신이 속한 집단에서는 자신의 주장이나 이익보다 집단구성원과의 관계유지 혹은 집단 내의 조화로운 분위기를 중요시하는 성향 및 행태가 나타난다고 볼 수 있으며, 상호적 및 정감적 유대감이 형성되지 않은 개인이라 할지라도 상대를 배려하고 친절하게 대한다고 할 수 있다. 이로써 인간관계를 측정하는 다른 척도와 이론적으로뿐만 아니라 실증적으로도 변별이 된다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이러한 결과는 온정적 인간관계 척도가 조직문화와 교환적 인간관계를 설명할 수 있는 척도임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다.

10) 교환적 인간관계는 인간관계의 초점이 자신의 성취감 획득에 도움이 되는 자기보상(self-reward)과 자기이익(self-benefit)에 있으며(Clark & Mills, 1979; Batson, 1993), 개인은 인간관계에서 주고받는 이익의 득실을 계산하고, 의무에 대한 보상 혹은 대가를 바탕으로 행동한다(Clark, Mills, & Powell, 1986). 예를 들면, 각 당사자의 이익을 바탕으로 관계를 형성하는 사업상의 관계를 교환적 인간관계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인간관계는 경우에 따라서 장기간동안 계속 될 수는 있지만 장기적·지속적 특성이 반드시 수반되는 것은 아니다(Clark & Mills, 1979).

표 6. 온정적 인간관계 척도와 유사 개념 간 상관

요인	온정적 인간관계	교환적 인간관계	집단지향성	가족주의	평균(SD)
온정적 인간관계	1				4.18(.564)
교환적 인간관계	-.019	1			4.17(.739)
집단지향성	.430**	.276**	1		4.67(.660)
가족주의	.318**	.133**	.320**	1	4.64(1.10)

** p<.01

논 의

본 연구에서는 한국인 인간관계의 척도를 개발하기 위하여, 대학생 및 성인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연구1에서 한국인·한국 사회에서 나타나는 인간관계의 특성에 관련된 45개의 예비문항을 개발하였고 탐색적 요인분석을 시행하여 문항을 정제함으로써 20개의 문항으로 재구성하였다. 연구2에서는 재구성한 측정문항을 활용하여 탐색적 요인분석, 확인적 요인분석을 시행하였으며, 최종적으로 우호적 태도, 정, 조화, 관계유지중시, 4개의 하위요인과 이를 측정하는 17개의 문항을 확정하고 변별성을 확인하였다. 또한 개발한 온정적 인간관계 척도와 유사 개념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함으로써 온정적 인간관계 척도가 조직문화, 인간관계 특성을 반영하는 개념들과 일정 부분 상관성을 갖지만 변별성을 갖는 개념임을 확인하였다.

먼저 한국의 인간관계에서 문화적 특성으로 볼 수 있는 이들 우호적 태도, 정, 조화, 관계유지 중시 4개의 요인의 의미에 대해 논의해보면 첫째, 한국인 인간관계의 하위요인 중 ‘우호적 태도’는 친하지 않은 사람 혹은 처음 본 사람을 대상으로 나타나는 친절함, 배려,

자상함 등이 해당되며, 친분 정도에 상관없이 일반적으로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¹¹⁾ 지금까지 비교문화적 관점에서 한국 사람들의 인간관계에 대한 특징 중 하나는 내집단과 외집단을 구분하여 내집단과는 친밀함을 유지하지만, 외집단에게는 배타적이라는 것이 강조되어져 왔다(이중환, 1994; 임태섭, 2006). 하지만, 본 연구 결과에 의하면 내집단과 외집단이라는 비교집단이 정해져 있지 않을 상태에서 일반적인 교류양식과 사회생활에 있어서 타인에게 우호적이고 친절한 모습을 보이는 것으로 측정되었다. 물론 한국인들이 내집단 구성원들과 정서적 애착과 동질감을 강하게 보인다는 것에 대해서는 본 연구의 ‘정’이라는 구성요소에서도 드러난 바와 같이 한국에서 갖는 독특성이다. 본 연구에서 개발한 한국인의 인간관계 측정을 위한 척도가 아직 완전한 것은 아

11) 서양과 동양의 문화권에 따른 차이에도 불구하고 문항선별 과정에서 참고한 House, Hanges, Javidan, Dorfman과 Gupta(2004)의 친애적 인간관계 척도와 본 연구의 우호적 태도 5개 측정문항이 거의 유사하게 구성된 것으로 보아, 이러한 특성은 문화권별로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개인의 가치 및 성향이라고 볼 수 있다.

니지만, 본 연구 결과에 비추어 본다면 한국 사람들은 내집단 구성원 즉 기존의 관계를 계속해서 맺어오던 사람들과의 교류 양상에서도 강한 동질감과 애착을 가지지만, 일반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배타적이기 보다는 우호적인 행태를 보이며 이는 지금까지 기존 척도에서 측정하고 설명하던 것과는 다른 방법과 새로운 해석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둘째, ‘정’ 요인은 한국인의 심리적 속성으로 한국인의 인간관계는 따뜻함, 끈끈함 등 ‘정’의 의미를 포함하며, 이는 공동체와 조직 생활에 있어 공동체와 조직에 몰입하고 헌신하는데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한국인의 인간관계에서는 상호 간의 지속적인 접촉이나 공동 경험을 통해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되는 ‘정’(임태섭, 2006)이 개인의 성향뿐만 아니라 인간관계의 정신적·정감적 유대감으로 작용한다고 할 수 있다.¹²⁾ 한국인의 ‘정’은 개인의 신념, 욕구, 감정뿐만 아니라 행위에까지 영향을 미치고(김기범, 2009), 한국 행정문화의 특성으로도 연구되었다는 점에서(백완기, 1975, 1982; 박통희, 2004a) 조직문화 및 조직관련 연구들에서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즉, 개인이 조직의 목표와 자신의 목표를 일치시키고 동기부여되는데 있어 그 구성원들과의 정서적 교류와 유대감 형성에 영향을 미치

는 협동심, 연대의식, 주인의식, 소속감 등은 조직의 효과성·효율성을 높이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될 수 있다(이재석, 2012). 이는 기존의 한국의 정적인 문화가 조직의 비효율성을 가져온다는 부정적인 인식을 벗어나 한국 토착적인 문화의 영향의 긍정적인 측면에 대한 해석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셋째, 한국사회의 인간관계 특성 중 ‘조화’ 요인은 집단주의 문화권에서 갈등보다는 조화를 중시하며(김숙현 등, 2004), 한국사회에서 각 개인은 자신과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관계를 맺고 있지 않은 사람의 욕구 및 행복에도 관심을 갖는 것이 미덕이라 생각하는 사회적 인식의 영향은 받은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한국사회는 전통적 유교의 영향으로 집단 구성원 상호 간의 조화를 중시하여 갈등 상황에 부딪히는 것을 바람직하지 않게 여기는 인식이 존재하였으며(임태섭, 2006), 일반적인 각 개인의 인간관계에서도 조화를 유지하는 것을 사회생활의 중요한 목표로 삼는 대임계순, 2002). 개인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사회영역에서 사람을 평가할 때에도 조화, 화합 등의 가치 중시 정도를 고려한다. 나의 주장을 강하게 하기 보다는 먼저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는 사람, 혹은 주장이 강한 사람보다는 양보하는 사람을 좋게 평가하는 경향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즉, 한국인의 인간관계는 공유적 인간관계에서 다루고 있는 인간관계보다 대상이 포괄적이며, 집단 내에서의 조화, 화합 등을 중시하는 한국인의 사회적 인식이 반영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넷째, ‘관계유지중시’ 요인은 기존에 유지해오던 관계가 끊어지거나 나빠지는 것을 우려하여 나타나는 특성으로 한국사회에서 더욱

12) 한국사회에서 정적 인간주의가 특정 집단을 대상으로 하여 나타난 예로서 가족주의와 직장가족주의를 들 수 있다. 가족주의와 직장가족주의 두 개념은 적용대상 혹은 발생동기에 따라 구분된다. 가족주의는 가족과 혈연집단 등의 자신과 동일한 귀속집단을 대상으로, 직장가족주의는 자신이 속한 직장 혹은 직장구성원에 대하여 한정되어 나타나는 정적 인간주의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유민봉, 박윤, 심형인, 2012).

부각되는 문화적 특성이라 볼 수 있다. 관계 유지중시 요인에서 Q18(한국 사람들은 친구에게 돈을 빌려주고 갚으라는 말을 잘 하지 못한다)은 조화적 대인관계 척도(최성식, 김성희, 2007)의 “돈 빌려간 친구에게 갚아달라고 말하여 그 친구와 멀어지게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친구가 돈을 빌려달라고 할 때 거절하여 그 친구와 사이가 나빠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와 유사한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 하지만 최성식과 김성희(2007)¹³⁾의 연구에서는 개인의 가치 및 인지적 측면이 부각된 반면에, 본 연구의 온정적 인간관계 척도에서는 관계 유지를 중시함으로써 나타나는 즉, 관계가 끊기거나 나빠질 것을 우려함으로써 나타나는 행동적 특성을 발견하였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한국 사람들은 타인과의 관계를 좋은 상태로 유지하는 사람을 좋은 사람으로 여기고 정든 사람과는 미운 감정이 들어도 쉽게 관계를 끊지 못한다는 관점에서 인간관계에서의 행동의 기저에 관계유지중시 가치가 작용한다고 해석해볼 수 있다.

종합적으로, 본 연구에서 발견한 우호적 태도, 정, 조화, 관계유지중시 4개 요인은 개인의 가치 및 성향과 한국사회에서 나타나는 인간관계의 특성 및 행태를 나타낸다. 또한 심리적 기저에는 한국인의 특성인 상호 간의 친밀감, 우리의식이 전제되어 있으며, 인간관계에서 정서적 교감, 유대 및 따뜻함 등을 중요시하므로 따뜻한 정적 유대관계 즉, 온정적

인간관계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온정적 인간관계는 한국인의 우리 의식 속에서 타인과의 친밀한 유대관계를 유지하고자 하는 개인의 성향을 의미하며, 이를 바탕으로 한 구성원 간의 유대감, 상호작용을 중시하는 가치 및 태도와 그로 인해 나타나는 행동의 총칭이라 할 수 있겠다.

한편 이 연구의 척도 개발의 의의 및 활용가능에서 보면 첫째, 본 연구는 예비문항 선정 과정에서 한국인들의 인간관계와 관련된 개념을 풍부하게 담아내기 내기 위해 기존 연구 및 논문뿐만 아니라 21권의 서적을 분석하였다. 3차에 걸친 내용분석과 7명의 참여 대학원생들의 교차검증 과정을 통해 학술적 용어가 아닌 일반인들이 익숙하고 한국사회에 공유되고 있는 표현 및 맥락을 찾아내고자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둘째, 예비문항을 검증하고 타당도를 분석하는 과정에 있어 총 2번의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연구대상의 분포를 고르게 함으로써 척도의 객관성 및 신뢰도를 높이하고자 하였다. 연구1에서는 대학생, 연구2에서는 일반인을 연구대상으로 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함으로써 일반화 가능성을 높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특히 연구2의 설문조사에서 연구대상의 모집단 분포를 고려하여 인구통계학적 변인(성별, 연령)의 분포를 고르게 하였고, 직업부문에서도 공·사 기업, 자영업, 학생, 가정주부 등 다양하게 분포되도록 하여 한국인·한국사회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을 발견하고자 하였다.

셋째, 본 연구에서 개발한 온정적 인간관계 척도에는 탐색적 요인결과 우호적 태도, 정, 조화, 관계유지중시 하위개념을 발견하였고, 이들은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온정적 인간관

13) 최성식과 김성희(2007)의 연구에서는 조화적 대인관계척도의 하위요인으로 대인관계 조화실천요인, 대인관계 정서요인, 대인관계 행동요인, 대인관계 인지요인을 발견하였으며 본 연구에서는 이 중 대인관계 인지요인의 측정문항을 참고하였다.

계'라는 하나의 공통의 상위요인에 속하는 하위요소임을 확인하였다. 연구2의 측정모형 검증에서 제시한바와 같이 4개의 하위개념은 서로간의 상관성이 있음과 동시에 한 차원 상위 개념 즉, 온정적 인간관계라는 개념을 측정하는 하나의 구성 개념으로서의 의미가 있다. 이는 추후 이 척도를 사용함에 있어 4개의 하위개념을 각각 이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를 통합하여 온정적 인간관계로 해석하고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온정적 인간관계 척도의 구성 타당도 검증을 위해 집단지향성, 가족주의, 교환적 인간관계와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는데, 분석결과 집단지향성, 가족주의와는 정적 상관관계가 유의미하게 나타났고, 교환적 인간관계와의 상관관계는 유의미하지 않게 나타났다. 이는 온정적 인간관계가 기존의 한국인의 인간관계적 특성으로 개념화된 집단지향성, 가족주의 개념들과는 의미적 속성을 공유한다는 것이 확인되었으나, 상반된 개념으로 알려져 있는 교환적 관계와는 그 유의미성을 발견하지 못했다. 본 연구의 결과만을 가지고 온정적 인간관계와 교환적 인간관계의 상관성과 관계성을 단정할 수는 없겠지만, 한국인들이 이 두 개념을 상반된 것으로 인식하고 있지 않을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으며, 추후 관련된 연구를 통해 이 두 척도간의 관계성을 명확히 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 개발한 온정적 인간관계 척도는 외집단 구성원에 대한 배타성과 타인에 대한 지나친 관심과 참견 등과 같은 기존에 부정적 의미로 해석되던 한국인들의 교류 행태의 이유와 의미에 대해 다른 시각을 제시할 수 있다. 즉, 기존 연구들에 의하면 한국 사람들은 타인에게 공격적이고 무뚝

뚝하다고 보고 이러한 현상에 대해 한국인들이 내외집단 구성원들에 대한 경계가 명확하여 외집단으로 볼 수 있는 일반사람들에게는 불친절한 것으로 이해하였다(구로다, 1994). 하지만 본 연구결과에 의하면 온정적 인간관계의 하위요소에는 일반적인 사람들에게 우호적이고 친절한 태도를 보이는 '우호적 태도'와 기존에 관계를 맺고 있었던 즉, 내집단 구성원들과의 정서적 교류 및 그 끈끈함을 의미하는 '정' 모두 한국인들에게 나타나는 중요한 특성이라는 것을 발견하였다. 즉, 기존 연구들에서 설명하고 기술하고 있는 한국인들이 인간관계의 특성과 더 나아가 사회, 조직 생활에 있어 의례 그러한 것으로 이해되고 해석되어오던 것들에 대한 새로운 해석이 가능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 개발한 인간관계 척도가 추후 연구들에 의해 더욱 정교화되고 타당성이 확보된다면, 이를 활용하여 개인심리 및 조직심리, 사회심리 등 여러 차원에서 관련된 주제들에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구체적으로 각각의 차원에서는 대인관계의 관계 형성 및 유지 상황에서 경험하게 되는 심리적 반응과 관계 형성의 이유 또한 타인과의 문제발생 및 문제해결 과정에서의 문화적 영향력 등과 같은 다양한 주제에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인간관계 개인의 욕구를 충족하고 갈등상황을 해결해 나가는데 있어 한국의 문화적, 맥락적 상황을 고려한 훈련 및 교육 프로그램 개발이 가능할 것이다.

본 연구의 한계점 및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을 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온정적 인간관계 척도의 변별성을 분석하기 위해 온정적 인간관계 척도와 관련 개념으로 볼 수 있는 집단지향성, 가족주의, 교환적 인간관계와의 변별타당도를 검증하였으나 활용한 측정도구의

타당도가 확보되지 않았다. 측정도구 중 집단 지향성의 경우 척도로서 개발되지 않았고 가족주의와 교환적 인간관계는 기존에 개발된 척도의 일부 문항을 참고하여 측정문항을 구성하였기 때문에 타당도가 확보되지 않은 한계가 있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본 연구에서 개발된 온정적 인간관계 척도와 선행연구에서 개발된 척도와의 변별타당도 검증 등 체계적인 타당화 연구가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연구1 예비문항 선정 과정에서부터 척도개발까지 한국인 · 한국문화의 특성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를 진행하였으나 타문화권 혹은 동일문화권과의 비교연구가 수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를 한국의 문화적 특성이라고 보기에는 부족함이 있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본 척도를 활용하여 문화 간, 국가 간 비교 연구를 수행한다면 한국인의 온정적 인간관계 특성을 보다 명확하게 알고, 한국인의 인간관계 문화적 특성을 이해하는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강준만 (2006). *한국인 코드*. 서울: 인물과 사상사.
- 구로다가즈히로 (1994). *일본인 미국인 한국인(홍영의 역)*. 서울: 지안사.
- 김경동 (2001). *한국인의 가치관과 사회의식*. 서울: 한국학술정보.
- 김기범 (2009). 정(情) 마음 모형 검증.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3(1), 147-163.
- 김덕균 (2007). *한국인의 삶과 문화에 나타난 공자의 인과 예 사상*. *유교사상문화연구*, 29, 247-267.
- 김성희, 박경희 (2008). 대학생 대인관계 조화 척도 개발. *상담학연구*, 9(2), 375-389.
- 김숙현, 김평희, 박기순, 신인아, 이두원, 정현숙, 최윤희 (2004). *한국인과 문화간 커뮤니케이션*.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 김영평, 정인화 (2004). *유교문화의 두 모습*. 서울: 아연출판부.
- 김용신 (2010). *심리학, 한국인을 만나다*. 서울: 시담.
- 김해옥 (2010). *외국인을 위한 한국문화읽기*. 서울: 에피스테메.
- 박명석 (1979). *동과서 - 그 의식구조의 차이*. 서울: 탐구당.
- 박영신, 김의철 (2008). 한국 청소년의 삶의 질과 인간관계. *교육심리연구*, 22(4), 801-836.
- 박준성, 김환일 (2008). *한국기업 인사평가제도의 실태조사연구*. 한국경영자총협회 노동경제연구원 연구조사자료.
- 박통희 (2004a). 情, 가족주의 그리고 대인간 신뢰: 한국 중앙정부의 사례. *한국행정학보*, 38(6), 23-45.
- _____ (2004b). 가족주의 개념의 분할과 경험적 검토. *가족과 문화*, 16(2), 93-125.
- 방희정, 윤진영, 김아영, 조혜자, 조숙자, 김현정 (2007). 한국 성인의 관계적 자기 구성요인 탐색 및 척도개발.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13(3), 23-63.
- 배병렬 (2011). *AMOS 19 구조방정식 모델링*. 서울: 청람.
- 백완기 (1975). *한국행정의 근대화에 대한 문화심리학적 접근법*. *한국행정학보*, 9, 71-102.
- 백완기 (1982). *한국의 행정문화*. 서울: 고려대학교 출판부.
- 송호근 (2003). *한국,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나*.

- 세대, 그 갈등과 조화와 미학. 서울: 삼성경제연구소.
- 오세철 (1986). 현대사회의 조직과 변동. 서울: 학민사.
- 유가기 (2010). 중국 내 한국 기업인들의 사회적 관계에 대한 인식과 현지화 성과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신문방송학과 석사학위논문.
- 유민봉, 박 윤, 심형인 (2012). 직장가족주의 개념화와 척도개발 연구: 공기업을 대상으로. 행정논총, 50(2), 375-402.
- 유민봉, 심형인 (2012). 한국사회의 문화적 특성에 관한 연구: 문화합의이론을 통한 범주의 발견.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문제, 19(3), 457-485.
- 이규태 (1983). 한국인의 의식구조 1. 서울: 신원문화사.
- 이수원, 이현남 (1993). 한국인의 인정에 관한 사회심리학적 이해. 한국심리학회 추계심포지엄: 한국인의 특성-심리학적 탐색 발표논문.
- 이종한 (1994). 연고주의가 한국사회의 발전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과 이에 대한 대안의 모색.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1(1), 83-94.
- 임계순 (2002). 중국인이 바라본 한국. 서울: 삼성경제연구소.
- 임태섭 (2006). 정, 체면, 연줄 그리고 한국인의 인간관계. 서울: 한나래.
- 정남운 (2001). 대인관계 원형모델에 따른 한국판 대인관계 문제척도의 구성. 심리과학, 10(1), 117-132.
- 정수복 (2007). 한국인의 문화적 문법 당연의 세계 낮설게 보기. 서울: 생각의 나무.
- 정재영 (2003). 사회 태도에 미치는 가족주의의 영향. 사회이론, 22, 361-394.
- 조금호 (2003). 한국인 이해의 틀. 서울: 나남출판.
- _____ (2007). 동아시아 집단주의와 유학 사항: 그 관련성의 심리학적 탐색.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1(4), 21-53.
- 진국화 (2011). 한중대학생들의 겸손 언행에 내재된 심리적 기제 탐색연구. 호서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찐웬첸 (2000). 한국인 중국인 일본인. 서울: 우석출판사.
- 차민정, 박소영, 송현주, 노연희 (2012). 집단주의 문화가 청년실업에 대한 불안 지각 및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문제, 18(1), 27-51.
- 차재호, 정지원 (1993). 현대 한국 사회에서의 집합주의.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7(1), 150-163.
- 최상진 (2000). 한국인 심리학. 중앙대학교 출판부.
- _____ (2011). 한국인의 심리학. 서울: 학지사.
- 최상진, 김지영, 김기범 (2000). 정(미운정 고운정)의 심리적 구조, 행위 및 기능간의 구조적 관계 분석.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4(1), 203-222.
- 최성식, 김성희 (2007). 초등학교 고학년용 조화적 대인관계척도 개발 연구. 초등교육연구, 20(3), 251-269.
- 최재석 (1994). 한국인의 사회적 성격(3판). 서울: 현암사.
- 최준식 (2002). 한국인은 왜 틀을 거부하는가?. 서울: 소나무.
- _____ (2003). 한국인에게 문화는 있는가. 서울: 사계절.
- 한규석 (1991). 사회심리학 이론의 문화특수성:

- 한국인의 사회심리학 연구를 위한 고찰.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6(1), 132-155.
- 황상민 (2011). 한국인의 심리코드. 서울: 추수밭.
- Anderson, J. C., & Gerbing, D. W. (1988).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in practice: A review and recommended two-step approach. *Psychological Bulletin*, 103(3), 411-423.
- Batson, C. D. (1993). Communal and exchange relationships: What is the difference?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19, 677-683.
- Berscheid, E., Snyder, M., Omoto, A. M. (1989). The relationship closeness inventory: Assessing the closeness of interpersonal relationship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7, 792-807.
- Clark, M. S., & Mills, J. (1979). Interpersonal attraction in exchange and communal relationship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7, 12-24.
- _____. (2011). A theory of communal (and exchange) relationships. In P. A. M. Van Lange, A. W. Kruglanski, E. T. Higgins(Eds.), *Handbook of Theories of Social Psychology*(pp.232-251). Thousand Oaks, CA, Sage.
- Clark, M. S., Mills, J., & Powell, M. C. (1986). Keeping track of needs in communal and exchange relationship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1, 333-338.
- Clark, M. S., & Ouellette, R., Powell, M. C., Milberg, S. (1987), Recipient's mood, relationship type, and helping.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3, 94-103.
- Fornell, C., & Larcker, D. F. (1981). Evaluating structural equation models with unobservable variables and measurement error. *Journal of Marketing Research*, 18(1), 39-50.
- Hair, J. F. Jr., Black, W. C., Babin, B. J., Anderson, R. E., & Tatham, R. L. (2006). *Multivariate data analysis*(6th ed.). Prentice Hall International.
- Hofstede, G. (1980). *Culture's consequences: International differences in work-related values*. Beverly Hills, CA: Sage.
- Hofstede, G. (1985). The interaction between national and organizational value system. *Journal of management studies*, 22(4), 347-357.
- House, R. J., Hanges, P. J., Javidan, M., Dorfman, P. & Gupta, V. (2004). *Culture, Leadership, and Organizations: The GLOBE Study of 62 Societies*. Sage Publications: Thousand Oaks, CA.
- Leung, M. T. (2010). The effects of Chinese values(Confucian work dynamism and human-heartedness) on students' achievement goals and learning strategies. Australian Association for Research in Education, AARE 2010 International education research conference.
- Locke, K. (2002). Circumplex scales of interpersonal values: reliability, validity, and applicability to interpersonal problems and personality disorders.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75, 249-267.
- Lu, L., Gilmour, R., & Kao, S. F. (2001). Cultural values and happiness: An east-west dialogu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 141(4), 477-493.
- Marshall, T. C. (2008). Cultural differences in intimacy: The influence of gender-role ideology and individualism-collectivism.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 Relationships*, 25, 143-168.
- Matsumoto, D., Yoo, S. H., & Fontaine, J. (2008). Mapping expressive differences around the world: The relationship between emotional display rules and individualism versus collectivism. *Journal of Cross-Cultural Psychology*, 39(1), 55-74.
- Oyserman, D., Coon, H. M., & Kemmelmeier, M. (2002). Rethinking individualism and collectivism: Evaluation of theoretical assumptions and meta-analysis. *Psychological bulletin*, 128(1), 3-72.
- Shulruf, B., Hattie, J., & Dixon, R. (2007). Development of a new measurement tool for individualism and collectivism. *Journal of Psychoeducational Assessment*, 25(4), 385-401.
- Ward, S., Pearson, C., & Entrekin, L. 2002. Chinese cultural values and the Asian meltdown. *International Journal of Social Economics*, 29(3), 205-217.
- Wheeler, L., Reis, H. T., & Bond, M. H. (1989). Collectivism-individualism in everyday social life: The middle kingdom and the melting po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7, 79-86.
- 논문 투고일 : 2014. 07. 08
1 차 심사일 : 2014. 07. 31
게재 확정일 : 2014. 11. 26

**Cultural characteristics of Korean interpersonal
relationships and scale development
- affective relationships**

Yoon Park

Hyungin Shim

Sook Jong Lee

Sungkyunkwan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cultural characteristics of Korean interpersonal relationships. A total of 45 preliminary items were selected through book and literature review about the characteristics of the Korean or Korean society in study 1. The first survey data were collected from the Korean university students. Through the item analysis and Exploratory Factor Analysis(EFA), 4 factors composed of 32 items were extracted. Four factors were found: 'friendly attitude, harmony, jeong(interpersonal affection), keeping relationship', and using content analysis, 20 items were refined. Study 2 was conducted with the data collected from the Korea adults. As the result of carrying out EFA and Confirmatory Factor Analysis(CFA), the final 17 items were fixed as an affective relationships scale of the Korean. And CFA were implemented to evaluate discriminative validity. Finally, the implications and limitations of this study were discussed.

Key words : Korean culture, affective relationships, scale development